

운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이야기

전시기간 : 2017.8.8.(화) ~ 8.17.(목) 09:00~18:00

전시장소 : 김제교육문화회관 정개갤러리(1층)



김제교육문화회관

본 안내문은 국립기념관의 자료를 편집・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 독립기념관 특별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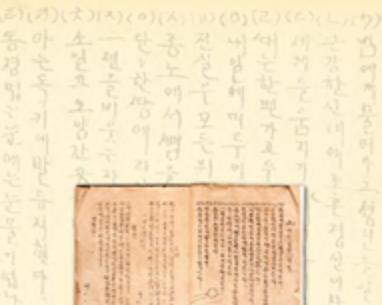
조국의 위기에 눈을 뜨다

농민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1908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윤봉길 의사은 오치서술(吳智書述)에서 한학을 배우고 책과 잡지를 읽으며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빼앗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우리 민족을 탄압하자 윤봉길 의사은 농민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1926년 애학당을 만들고 농촌의 부흥을 위해 부흥원(復興院)과 월진회(月進會)를 세워 농민조합 활동을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간
일제의 통영학식주식회사



『농민독립草稿』 1927

우리말을 가르치고 농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기 위하여 윤봉길 의사가 직접 만든 책의 일부입니다. (총리사 소장)



월진회기

월진회를 상징하는 모발로, 백마연족의 성천인 금수강선에서 무궁하게
발전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도 독립기념관 특별기획

장부출가생불환

독립운동을 위하여 상하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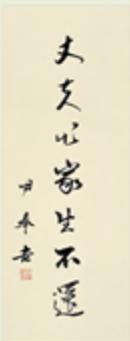
일본 경찰들의 감시로 농촌운동에 한계를 느낀 윤봉길 의사은 1930년 23살이 되던 해에 부인과 두 아이를 남겨두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 도착한 뒤 공장에서 일하거나 채소를 팔면서 정보를 수집하여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침대위에 머무를
당시의 윤봉길 의사

‘서울, 대구에서 상하이로’

“서울, 대구에서 상하이로, 일제의 사마귀를 피해
고려대학에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아버지와 함께
수령대학에 입학한 아버지와 함께 고려대학에서 활동하다
서울이나 대구에서 활동한 후에는 상하이나 대구로 옮겨들이거나
조선인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대구로 돌아온 적이



윤봉길 의사의 유묵

윤봉길 의사은 “사내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글을 쓰고 고함을 외쳤습니다.

‘서울, 대구에서 상하이로’
“...서울, 대구에서 상하이로, 일제의 사마귀를 피해
고려대학에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아버지와 함께
수령대학에 입학한 아버지와 함께 고려대학에서 활동하다
서울이나 대구에서 활동한 후에는 상하이나 대구로 옮겨들이거나
조선인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대구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대구에서 상하이로’
“...서울, 대구에서 상하이로, 일제의 사마귀를 피해
고려대학에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아버지와 함께
수령대학에 입학한 아버지와 함께 고려대학에서 활동하다
서울이나 대구에서 활동한 후에는 상하이나 대구로 옮겨들이거나
조선인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대구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은 “사내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글을 쓰고 고함을 외쳤습니다.

‘상하이로, 대구로’

“...서울, 대구에서 상하이로, 일제의 사마귀를 피해
고려대학에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아버지와 함께
수령대학에 입학한 아버지와 함께 고려대학에서 활동하다
서울이나 대구에서 활동한 후에는 상하이나 대구로 옮겨들이거나
조선인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대구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은 “사내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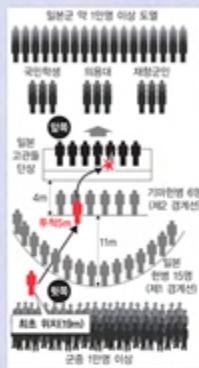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글을 쓰고 고함을 외쳤습니다.

2017년도 독립기념관 특별기획

폭탄에 독립의 꿈을 싣고

윤봉길 의사 의거의 순간

1932년 4월 29일 오전 9시 30분경, 일제의 승전 기념식 1부가 시작되어 군사파레이드가 펼쳐지고 이어 11시 30분경 기념식장 무대 위에 상하이를 침략한 일본 장군들과 일본인 대표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국기인 '기미가요'가 끝나갈 무렵, 윤봉길 의사는 일본 현병들을 제치고 무대를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는 순간 상황도

홍기우공원 행사장의 일본군 열병식



화가 직필 중앙무대에서 있는 당시 전경을
정복군 사령관 시라카와노부오 총장과 노무라 충장, 우에다 충장, 시게토스케 주중군사, 우에다 충장과 주중군사 이종성사, 거제군장
기미마쓰다 등

윤봉길 의사 의거의 성공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은 중앙 무대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시라카와 대장은 다음날 죽고, 노무리 충장과 우에다 충장 등 한반도와 중국 침략에 앞장선 일본인 다수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거는 성공했지만 윤봉길 의사는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거사 직후 일본 경찰에 붙잡혀가는 윤봉길 의사



의거에 사용되지 못한 도시락 폭탄



실망한 노무라 충장



인족 다리를 잊은 우에다 충장



거사 후의 행사장 모습

2017년도 독립기념관 특별기획

일본에서 진 별

당당한 송구

사형 당일, 일본인 검찰관 네모토根本가 사형을 집행할 것을 알리며 윤봉길 의사에게 유언을 물었습니다. 평행한 긴장감 속에서도 윤봉길 의사는 침착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을 이미 각오한 것입니다. 할 말은 없다.” 사형장에 도착한 윤봉길 의사는 두 눈이 흰 천으로 가려지고 몸은 십자형틀에 꽂았습니다. 그 일에는 일본 군인 두 명이 총을 기누고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긴장되는 최후의 순간, 윤봉길 의사는 조용히 한국말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당당함을 잊지 않고 부른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순국한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의 유물

의거 당시 가지고 있던 도침과 지갑으로, 솔국 후에 유품대신 유물로 가족들에게 보내집니다.

2017년도 독립기념관 특별기획

상하이의 불씨, 조국 광복으로 피어나다

어느 일본인의 고백

나라를 되찾게 되자,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찾아오려는 노력이 펼쳐졌습니다. 1946년 3월, ‘임시청부유해발굴단’은 거나자와에 가서 윤봉길 의사의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사흘 째, 땅에 물을 때 불경을 읽었다는 각존원覺尊院의 아마모토 료도日本了道라는 여승의 고백으로 드디어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육군묘지로 가는 통로로, 발굴단이 휴식처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화장했다고 거짓으로 알려놓고 몰래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묻어두어 그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하지만 양심 있는 일본인의 고백으로 늦게나마 윤의사의 유해를 찾아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유해 발굴 장면



1946년 7월 7일 국민장으로 거행된 윤봉길·
이봉창·백정기 세 분의 장례식

